

'천성산 살리기' 대학생들 나섰다

대학생 환경 운동가들이 천성산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결으면서 느끼는 느낌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8일까지 '고속철 반대, 천성산 살리기 파란 2004'가 열린다. 청년환경센터(대표 이현석)와 사회당대학생위원회(대표 임세환)를 비롯 서울대, 고려대 등의 환경동아리에서 환경 운동을 펼쳐오던 대학생 100여명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고속철 2단계 구간인 대구-경주-천성산-부산을 걷는 것으로 진행된다. 개발전선 견제 예정지, 북한산, 새만금 등 매년 환경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답사가 대학살의 눈으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찾기에 주력하는 학생들의 '파란' 바람이 천성산 살리기에 불어온 것이다.

'파란 2004'는 단군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환경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문화적 접근까지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한 선전선화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속도'와 '편리'에 매몰된 생명사상과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느리게 걸으며 국토를 느끼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파란 2004 대원들은 부산, 대구, 경주 등의 대도시에서는 고속철의 문제점과 천성산의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알리는 캠페인도 벌인다. 또한 천성산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천성산 기행 및 지을 스님과의 간담회도 마련해 놓고 있다.

대원들은 천성산의 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천성산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는 천성산 답사도 가진다. 환경문제 파괴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함께 느끼는 현장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파란 2004'는 현재 천성산 터널 공사 구간에서 90여일째

농성중인 지을 스님과의 만남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파란 2004'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 하기 위해 행사 이후에도 각 학교별 환경 동아리를 중심으로 천성산 살리기 여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대학생들은 청년환경센터, 사회당대학생위원회 등의 전국 조직을 활용, 전국 연대 구성을 통해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미 청년환경센터는 안터 KTX 인터넷 모임, 천성산 비상대책위와 함께 6월 17일 서울에서 고속철 반대 및 천성산 살리기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이 밖에도 이번 파란 2004를 학생 환경운동의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고 전국 규모의 연대체를 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청년환경센터 이현석 대표는 "주요한 환경 현안인 천성산 문제가 고속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사실상 묻히고 있다"며 "1차 개통 이후 통일호 폐쇄, 새마을·무궁화 갑축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선 선택

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속철도 문제를 들여다보고 천성산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이번 도보 순회 의의를 밝혔다. 집행위원장을 박민주 씨로 정하고 막바지 준비 모임을 갖고 있는 이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2)741-4978

한편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지을 스님은 "대학생들이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도보를 한다니 고맙고 힘이 난다"며 "대학생, 초등학생 등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 힘을 모아주고 있으니 이런 분들의 관심과 마음으로 천성산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서울대·고려대 등 100여명 참석
지을 스님과 만남, 현장 답사 계획
연대 통한 적극적 홍보 방안 모색

용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북녘 용천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참여 불교운동본부(공동 대표 황정, 이하 참여불교운동본부)는 5월 30일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참여불교운동본부 창립 법회를 갖고 2부 행사로 '북녘 용천참사 희생자 위령전도제'를 봉행했다. '늘푸른 세상' 주관으로 열린 이날 참여 불교운동본부 창립법 회에 이어 내일정사, 등명불원, 운수사, 황정사 등 부산의 각 사찰에 비치했던 '북녘 어린이 돕기 회사'에 모인 불자들의 정성스러운 보시금을 참여불교운동본부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 주관으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용천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 의식을 봉행하며 어린이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앞으로 한달 정도 추가 모금 운동을 펼친 뒤 통일부 민간단체에 가입하고 조선불교도연맹에 직접 1차 모금액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1천 5백여 만원의 모금을 벌인 참여불교운동본부는 향후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모금을 벌이는 한편, 미국, 일본 등지의 교포 사회에도 관심을 일으키는 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수퍼비전교육, 어린이집 교사 교육, 청소년 지도사 교육, 복지사업 사례발표회와 선진기견 견학, 불교소속기관 연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또한 이날 인기가 만료된 부불사협 회장에 해충 스님이 회장으로 재 선임되었으며, 화명중 합사회복지관(관장 유정)과 사회복지법인 해원(대표이사 원하)이 새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됐다. 부불사협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협의체로서 회원 기관 직원 연수회 개최를 통한 교류 증진은 물론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획으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언론사 및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사회복지인문인상을 시상해왔다. 천미희 기자

부불사협, 사업계획안 확정

어린이·청소년 지도사 교육 등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해충, 이하 부불사협)가 5월 31일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와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해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불사협 소속 기관이 화합·단결하고 자비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불교 복지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사업계획안 심의를 통해 중간

천미희 기자

부불사협, 사업계획안 확정

관리자 수퍼비전교육, 어린이집 교사 교육, 청소년 지도사 교육, 복지사업 사례발표회와 선진기견 견학, 불교소속기관 연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또한 이날 인기가 만료된 부불사협 회장에 해충 스님이 회장으로 재 선임되었으며, 화명중 합사회복지관(관장 유정)과 사회복지법인 해원(대표이사 원하)이 새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됐다. 부불사협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협의체로서 회원 기관 직원 연수회 개최를 통한 교류 증진은 물론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획으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언론사 및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사회복지인문인상을 시상해왔다. 천미희 기자

득도 스님 열반, 시신 의대 기증



6월 1일 세수 53세, 법랍 36세를 일기로 열반한 득도 스님(사진)의 법구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되어 주위를 속연케 했다. 이는 평소 장기 기증운동에 헌신해 온 스님의 생전 뜻에 따른 것으로 스님의 법구는 2일 경북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조문객을 받고, 3일 오전 7시에 발인하여 대구 동구 정병사에 위패를 모셨다. 평소 무소유를 강조했던 득도 스님은 1996년 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지부 지도법사를 맡아 장기기증 운동에 앞장서 왔다. 배지선 기자

권상무 교수 찬불가 연주회

단순한 찬불가가 화려한 기교의 연주곡으로 변신해 무대에 올랐다.

5월 28일 부산 동대의대 석당아트홀에서 '천성은 나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동대의대 음악아카데미 권상무 교수가 직접 작곡 및 편곡한 찬불가 선보였다. 단조로운 찬불가가 화려한 기교 넘치는 현대적 편곡으로 변신해 무대에 오른 이날 연주회에는 여여선원 주지 정여스님의 시 낭송이 곁들여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짜서 좋고, 도움줘서 기쁘고"

경주 동국대 유치원 나눔의 바자회 북한 및 세계 기아어린이돕기 일한



경주 동국대 부속 유치원 원생들이 신나는 노래와 물품을 선보이며 바자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2회 째 이어지는 이번 바자회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동참하여 사물놀이, 난타 등의 공연을 선보이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동아리들이 흥겨운 공연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며 지역의 많은 스님들이 각종 수공예품을 기증해 세계 불우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했다.

또 유치원생과 졸업생들은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직접 모금함에 넣으며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발원했다. 해가 저물고 이어진 3부 제등행렬에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등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수경 원장은 "이번 바자회를 계기로 경주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 불교사회복지회·남구청 공동 노인 일자리 마련 위한 장터 펼쳐



대구 교대 운동장에서 진행된 행복한 나눔장터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손때 묻은 물건을 팔고 있다.

5월 30일 대구 교대 운동장에는 대구시민 전체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이 폈다. 불교사회복지회 남구노인복지회와 남구청이 공동 주최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행복한 나눔장터'가 열린 것이다. '행복한 나눔장터'는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 일부는 노인일자리사업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노인에게는 역할과 일자리를 주는 활동의 장이며, 대구시민들에게는 자원재활용과 이웃돕기의 실천의 장으로 연결되는 뜻깊은 장터이다.

이번 장터는 대구에서 최초로 마련된 대구모 각종 베품시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이른 아침부터 각종 물건을 가지고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어린이장터, 노인장터, 가족시민장터, 축제장터 등 총 15개 판매처 중에는 가족이 총 출동한 이들도 있었고, 남대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단체로 장을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열린 나

눔의 가게는 향후 상설화 돼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얼마만 같이 나왔다는 남대구 초등학교 6학년 튜진광 어린이는 "웃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지도 스님은 "행복한 나눔장터가 단순 이벤트성 물품교환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 즉, 노인의 경험이나 기술 등을 상품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전 사회적 의식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빙의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교육내용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인"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면의 진정한 활용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상당 과정은 최면상태에서 떠올린 기억들이 실제전생이든 심리적 갈등의 상징이든 그 사실성 여부보다는 잠재의식에 내재되어있는 전생의 기억속에서 내담자가 일상생활속에서 겪고있는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해결 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의 효과는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속에서 방황하는 내담자에게 최면전생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삶의 제반 문제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보다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열어가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 1.최면이론 및 실기 : 최면개론,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명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 2.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 4.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 5.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와의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세 자사를 통한 원격 빙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된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과파, 해원과정, 재점심 방지 영치유법.
-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자문한다.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 2층 천리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WWW.HYPNOS114.COM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채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00사00 합장



大野 實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이카데미 원장
한국생활리듬심리학 회장
한국교육리듬학회 부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בריחת기운운동본부 부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이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최면이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6월 14일 / 21일 / 28일 / 7월 5일 / 12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경의 가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교과서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